

MONTHLY KOFA

# 코파의

# 칭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3**  
2026/08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인니, 대량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 출범... 최대 15만 개 일자리 위기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하자, 정부가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한 대량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가운데 약 55,000명은 세라믹 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량해고 대응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된 프라세토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정부와 국회, 노동조합이 이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라세토 장관은 국회의원 및 노동계 대표들과 회의를 마친 뒤 “어떤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노동부, 국회, 노동조합, 그리고 경찰 노동전담 부서가 참여해 인력 감축 위험



▲2025년 해고된 이흥 노바텍스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유튜브 캡처]

이 있는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프리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잠재적인 대규모 해고를 사전에 막고 노동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기 둔화와 공급망 제약으로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조합은 브카시에 있는 대형 세라믹 공장 두 곳이 산업용 가스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55,000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세토 장관은 해고 원인이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금 조

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퇴직금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23,47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나이키(Nike)와 푸마(Puma)에 제품을 공급하는 핑타이 인도네시아 엔터프라이즈(Feng Tay Indonesia Enterprises)는 신규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서부자바 공장 근로자 약 4,000명을 휴직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해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동부자바의 자동차 부품업체 두 곳이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프라세토 장관은 정부의 중재로 해당 이전 계획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2026 한-아세안 지역 연계성 포럼 개최

한-아세안 CSP 비전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하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7월 16일(목) 자카르타에서 「2026 한-아세안 지역 연계성 포럼(2026 ASEAN-ROK Regional Connectivity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한-아세안 FTA 개선 진전’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카오 김 후은(Kao Kim Hourm) 아세안 사무총장을 포함, 한국 및 아세안 연계성 전문가, 당지 외교단, 아세안사무국 관계자, 민간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 주아세안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가 상호호혜적 구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이 중요한 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동 전략계획 중 ‘공급망’ 측면에 집중하여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인프라,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연계성 협력을 이어왔음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하 연

계성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한-아세안 CSP 비전’의 본격적 이행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일 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해임을 강조했다.

안성배 KIEP 대외협력 부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디지털·신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FTA 개선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오 사무총장은 기초연설을 통

해 그간 한국측의 아세안 연계성 지원이 역내 통합, 지역 격차 해소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주요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아세안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ACSP 이행에 있어 한국 등 대화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강화 ▲한-아세안 FTA 개선 및 미래지향적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 참석자들은 ‘한-아세안 CSP 비전’ 및 ACSP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한-아세안 연계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세션 2에서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공급망 분야 연계성



▲2026 한-아세안 지역 연계성 포럼에서 환영사 하는 이철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대사(사진=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토의했다.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하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속 연계성 분야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된다.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자카르타 경제신문]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인도네시아 ‘10%’ 최종 확정

인도네시아 정부, 상호무역협정(ART) 이행 불구 추가 관세 직면...  
팜유·섬유 등 면세 혜택 상쇄 우려 속 18개 품목 예외 협상 총력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10%의 관세 부과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 정비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등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부 적용 기준 및 주요 배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최고 관세율이 부과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조치이나, 인도네시아 경제부처와 수출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1단계 그룹’ 분류로 10% 적용... 배경은?**

USTR은 이번 조치에서 총 19개 경제권을 10% 관세 적용 국가(1단계 그룹·Compliance Posture)로 지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10%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결정적 배경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된 실질적 법적 조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규정(No.9/2026) 등 관련 법령을 완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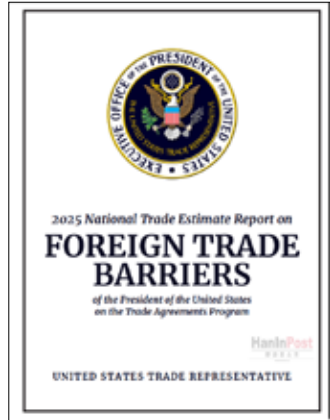
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공급망 차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그룹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반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규제 및 실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일률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 + 301조 관세 = 최종 12.5%’의 상한선이 적용되는 별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팜유·섬유 등 무역협정(ART) ‘0% 면세’ 혜택 상쇄 위기**

이번 미국의 301조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 2026년 2월 미국과 무역협정(ART)을 체결하고, 팜유, 섬유, 의류 등 1,819개 품목에 대해 ‘0% 관세(면세)’ 혜택을 보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공들여 체결한 무역협정의 면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위험에 처했다. 공급망 타격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18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현지 프리포트(Freeport-McMoRan)가 생산하는 구리 음극재 등 국가 핵심 수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외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2025년 외국의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등 잠재적 추가 리스크 상존**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이번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또 다른 통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Excess Capacity)’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중국 등과 함께 이 조사 대상국(총 16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상국들에 추가적인 관세 패키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부처는 미국 USTR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USTR은 미국 내 심각

한 공급망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471개 이상의 필수 품목을 이번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여기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 받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자동차·부품류가 포함되며, 석유, 가스, 비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 생산 장비, 민간 항공기 부품 등도 필수 품목으로 분류되어 중복 부과를 피했다.

미국 USTR이 지난 3월부터 착수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는 향후 수개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인포스트]

##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국제금융센터(이하 PFII) 설립을 위한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며, 후보지로는 발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뿌르바야 유다 사데와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PFII는 해외 자본 유입과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가 더욱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국가 발전에도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이번 법안은 국제금융센터의 제도적 운영 체계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고 모하마드 헤칼 하원의원이 설명했다.

또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중재기구와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는 특별법원도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 입지로는 발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조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발리

를 PFII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s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 인니 세무 시스템 ‘코르텍스’ 로 세무 행정 전면 통합…7월부터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이달부터 새로운 세무 시스템인 코르텍스(Coretax)를 국세 행정의 핵심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세무 감독과 법 집행, 세금 징수, 이의신청 및 분쟁 해결까지 모든 세무 행정을 코르텍스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13일 자카르타에서 “7월부터 코르텍스가 진정한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이 될 것이며, 세무 감독 업무 문서와 법 집행, 세금 징수, 이의신청 및 항소 절차가 점진적으로 코르텍스를 통해서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모든 세무 행정 업무가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돼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세무 문서와 업무 자료는 코르텍스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비모 청장은 모든 세무 업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부 업무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코르텍스를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 재무부 내 세무 관련 데이터는 물론 관계 기관 간 정보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다 표준화되고 검증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세무 감독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공정

한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 집행기관과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세무조사의 범위와 실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모 청장은 정부가 세수 확보와 납세 이행 관리,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코르텍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2025년 처음 도입된 코르텍스가 세무 행정과 국가 세수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했다. 통합 소득세 시스템을 통한 원천징수 증명서(Bupot) 발급은 10.72%, 소득세 관련 증명서 발급은 17.79% 각각 늘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소득세 순징수액은 272.26%

급증한 8조7천8백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법인소득세 총징수액은 56.8% 증가한 25조1천1백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연간 세금 신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월까지 2025 회계연도분 연간 세금신고서는 1,364만 건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약 8만2천6백건이 신고됐다. 정부는 초기 도입 당시 발생했던 각종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르텍스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

은 지난 7일 “코르텍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도 좋은 시스템이지만 인터페이스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모든 세무서의 성과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올해 세수가 2천3백조 루피아에 달해 2026년 국가예산 목표치인 2천358조 루피아의 9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는 46조9천억 루피아가량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니 제조업 경기 둔화 속 상반기 해고 3만2천명으로 증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상반기 해고된 근로자가 3만2,38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해고자의 약 5분의 1이 서부 자바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력부의 ‘사투 다타 켄나크르(Satu Data Kemnaker)’ 플랫폼에 따르면 1~6월 해고자는 총 3만2,389명이며, 이 가운데 서부 자바주가 6,727명으로 전체의 20.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반딇주 3,782명, 동부 자바주 2,85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실업보험(JKP)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다. 정부 규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자와 정년퇴직자,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 사망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노동 및 근로자복지 특별보좌관인 사이드 이크발은 실제 해고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이자 노동당 의장이기도 한 사이드는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해고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부 아프리카인사 누르 차관은 최근 여러 산업에서 해고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세계 지정학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뿌라보워 대통령이 해고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지난 17일 발표한 기업경기 조사에 따르면 2분기 고용은 위축세를 이어갔다. 노동활동지수는 1분기 48.76에서 2분기 48.65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3분기 지수가 49.7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대학생, 시민단체 등 수천 명이 세계 노동절(May Day)을 맞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제조업 경기 역시 악화되고 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6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9로 5월의 50에서 크게 하락하며 다시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신규 주문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폭도 1년 만에 가장 컸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수요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출 신규 주문도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무엘 증권(Samuel Sekuritas Indonesia)은 제조업이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둔화와 높은 원자재 및 투입 비용, 수출 주문 감소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부터 하락한 기업 심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루피아 약세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이드 특별보좌관은 지난 5월 이란 전쟁으로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자바 지역 제조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추세가 반딇주와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지역의 10개 기업에서 약 9천 명의 추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 2027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 약 20만컷의 고품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 인도네시아 신발 제조업 위기 진단: 현상, 원인, 대안

[편집자주] 다음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 2026년 7월 4일자 보도를 정리했다.

## 1. 신발산업 현황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요셉 빌리 도시요다 사무총장은 지속되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소비력 약화로 인해 향후 2~3개월이 산업의 생존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많은 제조 기업이 신규 투자를 멈추고 향후 몇 달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반동 신발제조 단지인 짜바두웃의 전통 제화 공장의 헬미 씨는 생산 비용 폭등과 수요 급감이 겹쳐 현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가혹하다고 밝혔다. 신발·의류 제조업체 ‘알라스 카키 탕구’의 사무엘 왕소 대표는 극심한 불확실성 탓에 정상적인 생산 계획과 고객사 견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내수 브랜드 ‘컴파스(Compass)’의 카하르 구나완 대표 역시 수입 자재 비용 상승으로 마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 2. 핵심 원인 분석

### ① 공급(생산) 측면의 원인

첫 번째는 불합리한 원자재 대금 결제 구조이다. 제조업 특성상 전액 선결제제가 불가능해 수개월 전 원자재를 주문하더라도, 물건을 받는 ‘인도 시점의 현재 환율’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전 가격 잠금(Lock-in)이 불가능하며, 루피아화 약세로 인한 환율 리스크를 고스란히 공장이 떠안고 있다.

두 번째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원가 폭등이다. 플라스틱, 고무 및 유사 재료 가격이 40~60% 상승했다. (과거 한때 플라스틱 가격이 200% 폭등하기도 함). 미국 달러(USD)로 책정되는 일부 의류 소재는 최대 160% 폭등했다. 기초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재조차



▲ 서부자바주 반둥에 소재한 내수 신발 브랜드 컴파스(Compass) [컴파스 홈페이지 캡처]

루피아화 약세 여파로 10~30% 연쇄 상승했다.

세 번째는 인프라 결함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정전 사태가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는 납품 지연으로 이어져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타가 됐다.

② 수요(소비) 및 유통 측면의 원인  
첫 번째는 지갑 닫은 소비자 (선택적 기피)이다. 신발은 필수재가

아닌 ‘선택적 소비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비력 약화 시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품목이다. 헬미 씨 공장의 경우 올해 수요가 30~40% 폭락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경쟁과 수수료의 덫이다.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마켓플레이스)로 대거 이동하면서 가격 비교 위주의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플랫폼이 부가

하는 과도한 행정 수수료가 더해져 제조사 마진을 쥐어짜고 있다. 세 번째는 중국산 저가 공세이다.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중국산 초저가 완제품 신발과의 단가 싸움에서 국내 업체들이 밀리고 있다.

### 3. 기업들의 자구책

#### ① 인력 감축을 통한 연명이다.

많은 공장이 생존을 위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헬미 씨 공장은 직원 수를 팬데믹 이전 약 120명에서 현재 6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② 마진 감소 감내 및 원가 절감  
수익률이 처참하게 떨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급망 다변화 및 대체 자재 개발 등 극한의 비용 절감 모드로 버티기에 돌입했다.

### 4.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 ① 단기적 긴급 처방

첫 번째는 사업 비용 완화이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수수료 인하 유도 및 기초 생산 자재 가격 안정화 조치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출 경쟁력 방어이다. 미국 시장 등 주요 수출국에서 타 경쟁국 대비 관세 우위(Tariff Advantage)를 유지할 수 있는 무역 외교 지원이다.

세 번째는 유동성 및 재정 지원이다.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세금 환급(Tax Refund) 절차 신속화, 산업용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보조금) 제공이다.

네 번째는 규제 확실성 제공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 규제의 확실성 확보하는 것.

다섯 번째는 관세 장벽 완화이다. 국내 대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원자재 및 부품에 한해 수입 관세를 즉각 인하하는 것.

#### ② 장기적 체질 개선

글로벌 공급망의 현지 유치 (인프라 구축)이다. 원자재 수입 의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주요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고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파격적인 장기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수수료 7,500만 루피아로 인상”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행 5,000만 루피아에서 7,500만 루피아로 인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귀화)할 경우 최대 7,500만 루피아(약 4,1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인이 국적을 가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루피아(약 27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정부령 제30호(2026년) ‘비조세 국가수입(PNBP)’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 국적 취득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 최대 7,500만 루피아로 정해졌으며, 실제 금액은 귀화 절차의 법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자발적인 국적 포기 수수료는 최대 500만 루피아로 책정됐다.

위도도 법무부 일반법무국 국장은 이번 규정이 과거 법무인권부에서 법무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점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항목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며 “일부는 그대로 유지됐고, 일부는 조정됐다”고 말했다.

위도도 국장은 이번 법규정 개정으로 국가에 기여가 높은 외국인에게는 수수료가 폐지됐다



▲인도네시아 여권 [자료사진]

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귀화하는 축구선수 등 외

국인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인은 신청 건당 2,500만 루피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적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 복수국적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5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회복하려는 신청에는 100만 루피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 ‘기회의 땅’ 이라던 인도네시아… 하나 · 신한 ‘선방’ , KB · 우리 ‘고전’

韓 은행 진출 14개국 중 인니만 순손실  
작년 KB국민 683억 · 우리 741억원 적자  
진출 빨랐던 신한 · 하나는 순이익 증가



동남아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 일본 · 영국 등 주요 거점에선 모두 흑자를 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만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 은행 인수와 영업망 확대에도 부실 여신과 금융 사고, 규제 부담이 겹치며 수익성과 건전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의 국가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53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금감원이 집계한 14개국 가운데 유일한 적자다. 미국(2억 1700만달러), 홍콩(2억 4300만달러), 일본(1억 6400만달러), 영국(1억 5800만달러) 등 주요국에선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동남아 6개국 전체로는 5억 88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인도네시아만 성적이 크게 뒤처졌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인도네시아 내 국내 은행 9개 해외 점포의 고정이자여신(NPL)은 8억

2940만달러로 집계됐다.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 채권을 말한다. 전체

여신 대비 NPL 비율은 7.81%로, 해외 점포 평균(1.36%)의 약 6배에 달한다. 부실 채권 부담이 수익성을 짓누르는 구조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뒤 ‘KB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동남아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부실 여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KB인도네시아 법인 순손실은 2023년 1733억원에서 2024년 241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68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5억원 순손실을 냈다. 우리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소다라은행 인수로 출범한 우리소다라은행은 한때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혔지만, 지난해 1000억원대 신용장 사기와 연금 대출 부실이 겹치며 741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969억원 손실을 내며 적자 폭이 더 커졌다. 하나 · 신한은행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2007년), 신한은행(2012년) 등은 비교적 이른 시기 현지에 진출해 영업 기반을 다져왔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당기순이익은 2024년 165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늘었고,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PT Bank KEB Hana)도 같은 기간 440억원에서 51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권에선 인도네시아 부진의 배경으로 구조적 요인을 지목한다.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을 인수할 경우 우량 자산뿐 아니라 부실 자산까지 함께 떠나는 구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부실 자산을 떠안고,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

서 흑자 전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지리적 특성과 정책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이다.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외 지역 차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일부 지역에선 관리 공백이 부실 여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 2024년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관련 대출 참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외국계 은행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규제가 강해 외국계 은행들이 당국 기조를 예민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격적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 기반이 약한 후발 주자일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조선비즈]

## 피치,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여전사 신용등급 유지…전망 ‘안정적’

신한금융지주 지원 가능성 반영  
낮은 수익성 · 자본 부담은 제약 요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한카드 인도네시아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의 신용등급을 ‘AA+(idn)’으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피치 인니법인 피치레이팅스인도네시아는 신한인도파이낸스의 국가 장기 신용등급을 ‘AA+(idn)’으로 유지했다. ‘AA+(idn)’은 인니 내 다른 발행사나 채무와 비교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고, 최고 등급과의 위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번 등급은 한국 신한금융지주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피치는 “신한인도파이낸스의 등

급은 신한지주의 특별 지원 가능성에 기반한다”며 “신한카드와 신한지주가 충분한 지원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신한인도파이낸스에 3520억 루피아(약 293억원)를 출자해 지분율을 50.01%에서 76.3%로 높였으며, 현재 차입금 대부분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피치는 이러한 지원 이력과 공동 브랜드 사용에 따른 평판 위험을 신한지주의 지원 의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다만 “현지 시장점유율과 그룹 실적 기여도가 낮아 신한인도파이낸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제한적”이라고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신한인도파이낸스 본사 내부 전경. (사진=신한인도파이낸스)

판단했다. 독자 신용도 역시 제한적인 시장 지위와 낮은 수익성으로 지원 기반 등급보다 낮게 평가됐다. 평균 자산 대비 세전이익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1.8%로 하락했다.

수익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건전성은 개선됐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금융자산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5년 1.2%로 낮아졌다. 다만 피치는 “최근 늘어난 금융자산의 건전성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형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24년 4.5배에서 2025년 5.5배로 상승했다. 위험 요인에 대해 피치는 “신한카드와 신한지주의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지원 의지가 약해질 경우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한카드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고 금융그룹과의 연계성이 약해지면 여러 단계의 등급 하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HE GURU

# HANSHIN

## 에어 콤프레셔



###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 ‘끝나지 않는’ 자카르타-땅그랑 유료도로 공사, 통근자들 불만

자카르타와 반뜰주를 연결하는 자카르타-땅그랑 유료도로에서 수개월째 이어지는 도로 보수공사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0일 전

했다.

이 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혼잡한 유료도로 가운데 하나로, 자카르타와 반뜰주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이자 수마트라행 페리가 출발하는 므락항(Merak)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일부 구간은

수까르노하타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다. 반뜰주 세랑에 거주하는 뿌르노 모 물로 사뿌뜨로(55)는 남부 자카르타 파프마와띠의 직장까지 평소 1시간이면 도착했지만 최근 두 달 동안은 여러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보수공사로 출퇴근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교통체증으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장시간 정체로 연료비 부담도 커졌다”며 출퇴근 시간 혼잡을 고려해 공사를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했다면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근자인 와완 리드완(55)도 반뜰주 동부세랑에서 서부 자카르타 토망까지 평소 2시간 걸리던 출근길이 최근에는 3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 원인으로 지속적인 도로 보수공사와 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화물차,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 등을 꼽았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 전문가 조코 스피조와르노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공사 구간을 모두 정리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의 교통전문가 수판도 수호도도 자카르타-땅그랑 유료도로는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통행량이 매우 많은 만큼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간 등 비혼잡 시간대에 공사를 집중하고 공사 구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첨단 시공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은 비용이 더 들지만 공사 기간을 줄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통행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영 유료도로 운영사 자사 마르가는 지난 6월 18일 자카르타-땅그랑 노선을 포함한 자사 운영 도로의 정기 유지·보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뜰주 땅그랑의 자카르타-땅그랑 유료 도로의 도로 보수 공사 모습 (사진: 자사 마르가)

자사 마르가 사장 리반 A. 뿌르완도노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학교 방학 기간 도로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지·보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 내용은 툰게이트 보수와 노면 파손(pothole) 보수, 노면 개량 등이며, 인공지능(AI)으로 노면 상태를 분석하는 특수 점검 차량을 투입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정밀 진단하고 현장 작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에이치시티, 인도네시아 정부 ICT 국제 컨퍼런스서 시험인증 협력 강화

개회식 축하·기술세션 발표...국제 표준 협력 성과 확인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기반 확대...  
글로벌 ICT 시험인증 네트워크 강화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 에이치시티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ICT) 시험인증 분야에서 국제 표준 협력과 해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에이치시티(대표 허봉재)는 14일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가 주최한 국제 ICT 시험인증 컨퍼런스에서 개회식 축하와 기술세션 발표를 맡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Global Conference on ICT Conformity Assessment Frameworks & Testing Standards 2026’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ICT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 협력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국제 행사다.

행사에는 미국 FCC TCB Council, 말레이시아 MCMC, 한국산업 기술시험원(KTL), 독일 로데슈바르츠(Rohde & Schwarz) 등 세계 각국의 시험인증 및 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별 시험인증 제도와 최신 시험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가 축하를 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허봉재 대표가 개회식 축하를 맡고 허윤정 SAR센터장이 기술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허 대표는 국가 간 기술 신뢰를 연결하는 시험인증의 중요성과 국제 표준 기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허윤정 SAR센터장은 ‘SAR Measurement Technologies and Latest Trends’를 주제로 최신 SAR 측정 기술과 국제 시험 동향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에이치시티가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 정부와 구축해 온 기술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 ICT 시험인증 정책과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공식 행사에서 개회식 축하와 기술 발표를 맡은 것은 에이치시티가 현지 ICT 시험인증 역량 강화와 국제 표준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에이치시티는 인도네시아 법인

을 거점으로 현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오며 현지 ICT 시험인증 체계 발전과 국제 표준 협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회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ICT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봉재 대표는 “시험인증은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산업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국제 시험인증 체계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이치시티는 ICT를 비롯해 모빌리티, 방산, 우주항공, 원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AI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과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와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200여개 국가의 해외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신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  
카카오 ID : rickyoo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 글로벌 불확실성 속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 수출 확대 위한 ‘3대 신전략’ 수립

지정학적 위기 및 세계 경제 둔화 대응... 제조업·서비스 중심 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시장 접근 확대·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시장 및 제품 다변화가 핵심 골자  
2026년 1~5월 누적 수출액 1,153억 6,000만 달러 기록, 비전통 신흥시장 공략 가속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실적을 방어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세계적인 경제 둔화 속에서 자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3대 국가 수출 확대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신전략은 원자재 중심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고성장 서비스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체질 개선의 신호탄... 1차 상품에서 ‘제조업 및 미래 서비스업’으로 전환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국(PEN)의 파자리니 푼토데위(Fajarini Puntodewi) 국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무역부의 핵심 전략이 ▲수출 시장 접근 확대,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수출 시장 및 제품 다변화라는 세 가지 거시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푼토데위 국장은 2026년 7월 8일(수요일)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향후 수년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순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공 단계에서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 개발 분야는 전통적인 강세 품목과 미래 성장 품목을 모두 아우른다. 농산물, 플랜테이션 제품, 수산물 등 1차 가공 산업은 물론 가공식품, 전자, 자동차, 신발, 섬유, 철강, 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격적인 영역 확장이다. 무역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 흐름에 발맞추어 게임,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미래 수출 유망 산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 [전략 1] 자유무역 네트워크망 총동원... 글로벌 시장 접근성 극대화

첫 번째 전략은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주요국 및 지역 블록과 총 25개의 국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중동 시장의 관문인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UAE-CEPA)을 비롯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인도네시아-호주 CEPA, 인도네시아-유럽연합 CEPA, 인도네시아-페루 CEPA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Indonesia-GCC FTA), 인도네시아-한국 CEPA,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항구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사진: 출처 미상)

동반자협정(IPEA),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 등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수출 활로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 [전략 2] 중소기업(UMKM) 경쟁력 강화...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지원

두 번째 전략은 수출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영세·소·중기업(UMKM)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까다로운 국제 표준 규격이나 통관 절차를 넘지 못해 수출에 좌절하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무역부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매칭, 무역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를 중소기업까지 넓혀 내실 있는 무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 [전략 3] 시장·제품의 다변화... ‘비전통 신흥시장’ 영토 확장

세 번째 전략은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특정국의 경기 침

체가 인도네시아 경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무역부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기존의 10대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교역을 견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비전통 시장(Non-traditional Market)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신흥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페루, 파키스탄, 케냐 등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망라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영토 확장을 위해 무역부는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된 상무관(Trade Attache)과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로 구성된 46개 해외 무역대표부의 네트워크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 해외 무역대표부를 통한 현지 프로모션, 국제 전시회 참가, 무역 사절단 파견, 그리고 자국 최대 규모의 수출 행사인 ‘인도네시아 무역엑스포(TEI)’ 등을 포함해 총 178건에 달하는 공격적인 국제 무역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푼토데위 국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시장 인텔리전스(Market Intelligence) 정보와 컨설팅 지원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수출 실적 분석... 단기 둔화 속 누적 실적 ‘성장세’ 유지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표한 최

신 무역 통계에 따르면, 단기적인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변동성 속에서도 누적 수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월간 수출액은 232억 미국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 일수 감소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월(2026년 4월) 대비 8.30%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2025년 5월) 대비로도 5.73% 감소한 수치다. 월간 기준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석유·가스 부문 수출이 34.38% 급감하고 비석유·가스 부문 역시 7.05% 줄어든 점이 꼽힌다. 그러나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수출 총액은 1,153억 6,000만 미국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석유·가스 부문 수출이 5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석유·가스 부문 수출이 3.89% 증가한 1,10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비석유·가스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방증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3대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은 단기적인 대외 풍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 경제의 외화 자급률을 높이고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한인포스트]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PT. Indokon Multi Sarana

##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 순환정전 장기화, 냉동·냉장 식품 변질 ‘비상’ ... 식중독 주의



▲본문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순환정전(pemadaman listrik bergilir)으로 인해 상업용 및 가정용 냉동·냉장 보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식품 변질 및 식중독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 전력망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냉동·냉장 보관 장애로 식품 안전에 직접적 타격

최근 칼리만탄, 수마트라, 자바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순환정전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냉동고와 냉장고의 작동이 중단되고, 보관 중인 신선·냉동 식품이 녹고 부패할 위험이 커지는 등 신선식품 유통 과정의 온도 관리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냉동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등 냉동 제품이 녹아 상품 가치를 잃고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남부칼리만탄주 반자르바루에서 냉동식품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상인 파샤 씨는 반복되는 정전으로 인해 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냉동고가 꺼지면 제품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시방편으로는 한계... 상인들 교육지

책에도 변질 위험 여전

정전 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상인들은 냉기 유출을 막기 위해 냉동고 유리문 위에 두꺼운 종이상자를 덮는 등 교육지책을 쓰고 있으나, 장시간 정전 앞에서는 녹는 속도를 조금 낮출 뿐 완벽한 방어는 아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영세해서 고가의 소형 발전기(비상 전원)를 갖출 여력이 없다며, 정전 시 식품 온도가 그대로 상승하는 무방비 상태라고 호소했다.

반자르바루에서 음료를 파는 릴리스 씨는 “여기는 거의 매일 4시간 정도 정전이 된다”라며 “플라스틱 컵 밀봉하는 기계가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장사를 중단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부칼리만탄 폰티아낙에서 얼음 제조 사업을 운영하는 윤 안나는 정전이 8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면, 장시간 정전이 되면 제빙기와 냉동고가 멈추면서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사업자 모두 정전 시 냉동·냉장 식품 조심!

잦은 정전으로 인해 변질된 식품을 섭취

취할 경우 식중독 및 세균 감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냉동식품이 한 번 녹으면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다시 냉동하지 말고, 바로 먹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온 보관 식품은 먹기 전에 냄새, 변색 여부, 질감의 변화, 모양의 변화 등을 반드시 점검한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 일단 정전이 시작되면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뿔 수 있는 대로 열지 않아 내부 냉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정전 현황과 원인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정전은 지난 5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수마트라 섬 거의 전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7일 동안 정전이 지속돼 1,300만 명이 넘는 국영 전력회사 PLN 고객이 피해를 보았고, 현

지 당국은 정전으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PLN은 반복되는 정전 사태의 원인을 극심한 기상 조건과 기술적 결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돌렸다. 그러나 전력 전문가들은 석탄 공급 부족을 최근 정전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추측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에 발전용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발전소에 납품하는 석탄 가격의 상한선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는 ‘국내 시장 의무 공급(DMO)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이 톤당 120달러를 넘어섰고, 생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탄광업체들이 DMO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 분석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공급가격과 국제시장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 석탄 공급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정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Create Well Life

# CERAGEM

“건강한 척추관리가 바로 세월을 이기는 힘입니다!”

**비만  
만성질환개선  
신경통**

**피로는 만병의 근원!**  
매일 올바른 척추관리는  
활력넘치는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ECHOM 제도실시**  
Master V3를 가정에서 1개월동안  
충분히 효능을 느껴보시고 결정하세요!

위치 : Ceragem Tangerang center / Ceragem BSD center  
문의처: **LEE TAE JU** 62 812 9276 7549 / **MELINDA** +62 858 8292 0201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 엄마 신발 스케쳐스, 이번 월드컵에서 갑자기 뜬 이유

아빠의 운동화 브랜드였던 스케쳐스가  
이제 모두가 찾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한 걸까?



역사적으로 스케쳐스는 ‘멋진 브랜드’와는 거리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무릎에서 술술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신는 신발, 아버지가 산책을 너무 많이 한 뒤 찾게 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편안한 것은 인정. 하지만 ‘힙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컵 한복판에서 스케쳐스 축구화 품질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해리 케인이 있다. 잉글랜드 주장 해리 케인은 2023년 10년 넘게 이어온 나이키와의 계약을 끝내고 스케쳐스와 손을 잡았다. 당시만 해도 축구화 역사상 가장 의외의 계약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니, 누가 스우시를 떠나겠는가. 보통은 나이키가 선수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해리 케인이 달은 순간부터 스케쳐스와 수십 년 동안 축구 시장을 지배해 온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가 시작됐다. 해리 케인과 함께 SKX 시리즈를 공개했고, 첫 모델은 SKX

1이었다.

축구화 전문 플랫폼 부츠 클럽의 설립자 프란체스코 멜레는 이렇게 말한다.

“해리 케인의 스케쳐스 축구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칭찬해야 할 것은 스케쳐스 자체입니다. 축구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정상급 축구화를 만들어 온 대표 브랜드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후 등장한 SKX 2는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발을 더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핏니트 소재를 적용했고, 끈 배치도 발등에 더욱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설계됐다. 앞코에는 PSC 텍스처를 적용해 볼 컨트롤을 위한 그립력을 높였다. 참고로 핫핑크 컬러도 출시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착화감이다. 축구화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스케쳐스다운’ 특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어

진 무대는 축구에서 가장 거대한 쇼윈도였다. 월드컵. 이번 대회에서 해리 케인이 넣는 모든 골은 사실상 스케쳐스 광고나 다름없었다.

수십억 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잉글랜드가 토너먼트에서 계속 살아남자 사람들은 단순히 축구화를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찾기 시작했다. 월드컵 개막 당시만 해도 여러 판매처에는 SKX 2 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대부분의 재고가 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리셀러는 이렇게 말했다. “월드컵이 시작될 때만 해도 별 기대

없이 몇 걸레 사됐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계속 이기고 해리 케인이 계속 골을 넣자 재고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며칠 전 멕시코전 이후에는 DM이 폭주했습니다.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더라도 구해달라는 고객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스케쳐스 축구화에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보통 이런 현상은 희귀한 나이키 하이퍼베놈이나 클래식 아디다스 프레데터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집 앞 잔디를 깎을 때 삼촌이 신는 브랜드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었다. 리셀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기 어려웠던 팬들조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잉글랜드 팬들 스트롱은 말한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정원 손질할 때 신던 신발이 이제는 어린 시절 우리 집 뒷마당을 넘어 월드컵 잔디 위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쳐스를 최고 수준의 축구와 연결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이 혼자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프란체스코 멜레는 SKX 2가 성공한 이유를 해리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찾는다.

“해리 케인의 경기력이 어떤 기술 설명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경기마다 잉글랜드를 골로 이끌고 있고, SKX 2는 이제 그 성공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스케쳐스가 당장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해리 케인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사람들이 스케쳐스를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편하지만 멋지진 않은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아온 스케쳐스에게, 그것이야말로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승리일지 모른다.

GQ

## 아디다스골프, 강력한 접지력의 ‘코드케이오스 27’ 런칭

2020년 첫 출시 올해 4번째 버전  
연간 10만 족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아디다스골프 ‘코드케이오스 27’

기다’를 슬로건으로, 기존 버전들의 편안한 착화감을 기반으로 강력한 접지력과 안정성을 갖춰 다양한 코스 환경에서 최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신발 측면부터 하부까지 연결된 안정화 시스템 ‘엑시

스락’을 새롭게 도입, 뒤꿈치를 견고하게 잡아주며 발의 좌우 흔들림과 뒤틀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중 구조 갑피와 BOOST 미드솔은 우수한 뛰어난 착화감과 쿠셔닝을 제공한다. 또 발 전체를 감싸는 플랜스 커버리지 설계를 적용해 이전 모델 대비 ‘트위스트 그립 아웃솔’의 접지 면적을 약 120%로 확대하고, 4가지 형태의 러그(돌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한다.

[출처] 어패럴뉴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저력을 확인시켜준 강팀이라면 여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전통의 라이벌 나이키보다 더 많은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확보하며 경기장 점유율에서 앞서나갔죠.

최근 실적을 따져보면 나이키의 침몰과 대비되는 아디다스의 부활이 더 돋보이는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적자 늪에 빠져 위태로웠던 아디다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디다스 부활을 이끈 비외른 굴덴(Björn Gulden) CEO의 리더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원 6만명에 전화번호 준 CEO 베스트셀러 이지(Yeezy) 시리즈가 래퍼 칸예 웨스트(예)의 혐오 발언으로 인해 갑자기 12억 유로(약 2조원)짜리 악성 채고로 돌변했습니다. 실적은 고꾸라졌고 주가는 폭락했고 CEO까지 교체됐죠. 사태 수습을 위해 경쟁사 푸마의 CEO였던 비외른 굴덴을 영입한 2023년 초, 아디다스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굴덴 CEO가 침체된 회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첫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꺼내든 무기는 솔직함. 그는 민감한 재무 데이터는 물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전체 직원 6만 명한테 공개해버렸죠. “직원들은 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저는 매주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와 왓츠앱 메시지를 받아요.”

굴덴 CEO는 아디다스 위기가 제품이 아니라 조직의 속도에 있다는 걸 꿰뚫어 봤어요.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문화”까지 조직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그는 마치 드리블 하듯 이를 돌파해 나갑니다.

2022년, 패션업계에선 레트로 열풍을 타고 밀창이 얇고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 스니커즈 유행이 서서히 돌아올 조짐이었었고, 특히 블랙핑크 제니가 신었던 아디다스 ‘삼바’는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

어요. 하지만 아디다스는 삼바, 가젤 같은 클래식 스니커즈 생산량을 2024년에나 늘리겠다는 느슨한 계획을 세워뒀는데, 2023년 초 회의에서 굴덴 CEO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다려?” 그리고 계획을 1년 앞당기라고 했죠. 직원들이 수많은 이유(생산능력 부족, 가족 수급의 어려움 등)를 들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계 베테랑인 그는 “필요하다면 가족을 직접 조달해 오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렇게 아디다스는 2023년 클래식 스니커즈 ‘삼바’와 ‘가젤’ 생산량을 계획의 10배로 늘렸고요, 결과는 대성공.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신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삼바 열풍’이 불었죠. 단순히 ‘이지’ 시리즈의 실패를 만회할 새로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어요. 그저 조직에 속도감을 불어넣었을 뿐인데, 아디다스의 잠자고 있던 유산이 깨어

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의사결정은 한층 빨라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일 이외 사업장의 경영 자율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준철 기념으로 출시했던 ‘탕(唐) 채킷’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전통 단추 모양과 현대적 스트리트웨어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에서도 ‘중티



▲위기를 딛고 아디다스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아디다스 제공

## ‘이지’ 무덤에서 ‘삼바’ 신화로… 아디다스가 승리한 방식

난 거죠.

‘중티다스’가 이룬 반전 “이 업계엔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직적 계층 구조 없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죠. 하나의 보고라인과 명확히 정의된 규칙에 의존하는 건 이 업계, 소비재 산업과 맞지 않아요.” (2023년 9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국 인터뷰)

16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해야 경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인인 굴덴 CEO는 독일 본사가 결정권을 틀어쥐는 중앙집중화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조직을 매트릭스(Matrix) 식으로 뜯어고쳤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고위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죠. 이제 굴덴 CEO는 영업 및 브랜딩 총괄까지 겸임합니다.

이를 두고 초기엔 “1980년대 경영 스타일”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부서가 중간 계층 없이 CEO



▲2026 런던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사바스티안 사예. AP 뉴시스

다스’라며 화제가 됐죠.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건 제품 개발의 실질적 권한을 중국 현지 팀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넘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상하이 크리에이티브 센터가 중국 판매 제품 중 약 65%의 디자인을 담당하죠. 중국 사무소가 보고해야 할 독일 본사 측 임원은 CEO 한명 뿐입니다. 중국은 유럽과는 달라서 너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현지 직원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굴덴 CEO

의 설명이죠.

이런 현지화 전략은 아디다스 반전의 열쇠가 됐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으로 2022년 감소세를 보였던 아디다스의 중국 매출은 2023년부터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전 중국이 아디다스 부활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죠. 올해 1분기에도 아디다스 중화권 매출은 17%나 증가했는데요(환율 영향 제거 기준).

경쟁사 나이키와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죠. 나이키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부진이 이어지자 할인을 남발하며 재고 밀어내기에 급급했죠. 그 결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나이키의 최근 3개월 중화권 매출은 전년보다 17%나 급감하면서, 중국이 갈길 바쁜 나이키의 발목을 잡는 높이 되어버렸죠.

스포츠 명가의 헤게모니 복원 사실 2020년대 초,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비슷한 실적을 범했습니다.

잘 팔리는 일상용 스니커즈(아디다스는 이지, 나이키는 덩크) 판매에 집중하느라, 러닝화 분야에선 혁신이 멈췄던 거죠. 특히 아디다스는 2010년대 후반 울트라부스트(UltraBoost)의 폭발적인 성공에 안주하다가 엘리트 러닝화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사들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러닝 붐은 빠르게 커져 갔고요, 이 틈을 타 호카나 온러닝 같은 신생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이런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굴덴 CEO는 다시 아디다스의 우선순위를 ‘스포츠’로 돌려놨습니다. 스포츠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 스포츠 중에서도 핵심은 러닝과 축구였죠.

이 전략은 적중했었고, 아디다스의 퍼포먼스 부문(러닝, 축구, 트레이

닝 등)은 1분기 매출이 29% 급증하며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엔 런던 마라톤에서 아디다스 러닝화를 신은 선수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식 대회 ‘마의 2시간 벽’을 깨는 신기록을 세워 모두를 놀라게 했죠. 무게가 100g이 채 되지 않는 판매가격 500달러짜리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인데요, 굴덴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에 대해 “매우 의미가 큰 성과”이고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이 신발은 수천 켤레가 팔릴 거라고 예상했던 제품은 아니지만, 실제 수요는 수천 켤레에 달합니다.”

축구에 진심인 굴덴 CEO는 취임 후 직접 축구 명문구단과의 파트너십을 챙겼는데요, 애스턴 빌라, 셀틱, 뉴캐슬,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호날두가 소속된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 등이 새롭게 아디다스와 손을 잡았고요, 2025년엔 나이키의 가장 큰 축구 고객이던 리버풀FC까지 탈환했죠.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아디다스는 나이키(12개 팀)보다 많은 14개 국가 대표팀 유니폼에 로고를 새겼는데요, 2022년 월드컵(아디다스 7개, 나이키 13개팀) 때와 비교하면 축구 명가 아디다스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디다스는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인 없는 정가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총이익률(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남은 이익의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51.6%, 2025년 연간 기준)을 기록했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굴덴 CEO는 “아디다스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에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요.

물론 트렌드란 늘 변화하기 마련이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은 만만찮습니다.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앞날이 탄탄대로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아디다스는 이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었었고, 그 민첩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나이키와는 다른 점이죠.

By.답다이브 [동아일보]

## 톱슨 목 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Nike x Kith Linen 컬렉션, 25년 스니커즈 역사를 다시 꺼내다



2001년 Air Force 1 Linen을 'Un-Linen' 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Air Max 95 Linen까지 라인업에 더한다. Kith와 Nike가 곧 출시할 Kith x Nike 'Linen' Collection으로 25년에 걸친 스니커즈 역사를 다시 꺼내 든다. 2026년 여름 출시 예정인 두 모델 구성의 이번 컬렉션은 레트로 컬러웨이를 향한 Ronnie Fieg의 10년간의 집념을 바탕으로, Air Force 1의 컬러 블로킹을 완전히 뒤집은 버전과 Air Max 95를 새롭게 해석한 모델을 선보인다. 2001년 일본 한정판(CO,JP) Air Force 1로 처음 출시된 부드러운 브라운과 핑크의 조합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성배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2016년 Kith는 Art Basel Miami에서 이 컬러웨이의 첫 레트로 모델을 출시하며 깊은 인연을 확고히 했다. 그 역사적인 재발매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Fieg는 과감한 소재와 시각적 반전을 통해 이 신발의 역사를 새롭게 풀어낸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2001년 오리지널의 클래식한 컬러 블로킹을 뒤집은 'Un-Linen' Air Force 1이다. 기존의 탄 컬러 베이스 대신 프리미엄 핑크 레더가 어퍼 대부분을 채우고, 탄 컬러는 스우시와 아웃솔에만 배치해 익숙한 실루엣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함께 출시되는 새로운 Air Max 95 Linen은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팔레트를 보다 퍼포먼스 지향적인 러닝화 실루엣에 옮겨온 모델이다. 오리지널 공식에 더욱 충실하게, 시그니처 브라운 톤을 패널 전반에 펼치고 그 뒤로 숨겨진 Kith 로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파스텔 핑크 포인트는 아일릿과 레이스 루프, 그리고 모델의 상징인 비저블 에어 버블에 적용돼 균형 잡힌 대비를 이룬다. 두 모델은 소재 측면의 기술적 업데이트이자 200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컬러 스토리 가운데 하나에 보내는 헌사다. Kith x Nike 'Linen' Collection은 2026년 여름 Kith를 통해 출시된다. HYPEBEAST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